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2 202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4 / 2

시절 인연	02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법정 스님 편지	06	봄에는 꽃 피고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08	일상의 심화
법정 스님 따라 하기	12	알라바카 야차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6	향 파는 장자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19	옹이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0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4년 2월 1일 발행 / 통권 348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및 편집인 덕조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 법정 스님 2000년 3월 경전반 강의 1

옛그제가 새천년이라며, 떠들썩하게 해맞이하더니 올해도 벌써 4분의 1이 빠져나갔습니다. 옛날 노인들 말에 ‘한 세상 잠깐이라네’라는 말이 있는데, 살아본 분들의 말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컴퓨터 하지 않는 분 아직 많이 계시죠. 저도 아직 컴맹입니다. 아는 거사가 워드 프로세스로 글을 쓰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고 해서, ‘나도 한번 배워볼까?’ 하다 다시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제가 있는 곳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사용할 수 없고, 또 산중에 혼자 있는 방에 덩치 큰 기계를 들여놓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살아가는 데 조금도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이 시대 문명의 연장이니 어머니들도 기회가 닿으면 익혀두시기를 권합니다. 생활 도구이므로 저항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기체이므로 기계를 전적으로 믿지는 말아야 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계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 대부분이 컴퓨터를 하는데,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직접 해봐야 자녀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니, 정보화니 하며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 거기서 우리가 얻어듣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기 방에 갇혀서 컴퓨터만 들여다보면서, 가상 공간에서 친구와 이야기하고, 낯선 사람과 연애도 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극히 관념화 됩니다. 직접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보다 화상을 통해 만나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갈수록 사람이 관념적이고, 이기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좋은 쪽으로 변해야 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탈인간화된 모습으로 변해가다 보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떤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 이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기 나름의 주관, 인생관 이런 것이 투철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집안마다 내려오는 가풍(家風)이 있었고, 절에는 절 나름의 사풍(寺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것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윤리와 가치관이 무너져 가면서 전통적인 가풍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핵가족 사회에서 오는 부산물일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논밭을 가꾸려면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3대, 4대가 살면서 불편하지만 참아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과 전통이 전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노인들 스스로가 자식들에게 얹혀살기를 싫어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이들 돌볼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양로원이나 절에 결제(結制)하러 가라 하고, 서로 불편해서 흩어져 살다 보니

가정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집안의 고유한 전통이라든가 좋은 미풍美風, 가풍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가치관이 크게 흔들리는 세상일수록, 새삼스럽게 자기 삶의 가치관이나 생활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의지대로 못 살고, 시류時流에 흘러가며 살게 됩니다.

오늘 경전반 강의는 자기 나름의 생활 규범을 갖자는 뜻에서 램 다스(Ram Dass/1931-2019)라는 명상가의 생활 규칙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램 다스’라는 명상가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어떤 계기로 교수직을 버리고, 이름을 리처드 앨퍼트(Richard Alpert)에서 인도식 이름 ‘램 다스’로 바꿔 명상 수행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살았던 생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권유했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은 조용히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라

집에서 하루 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주부로서 여러 가지 일도 바쁘겠지만 좀이 쑤시고, 전화도 해야 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24시간 중에 단 한 시간만이라도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조용히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익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익혀야 합니다. 단 3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살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익히다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고 고마운지 스스로 누리게 됩니다. 물론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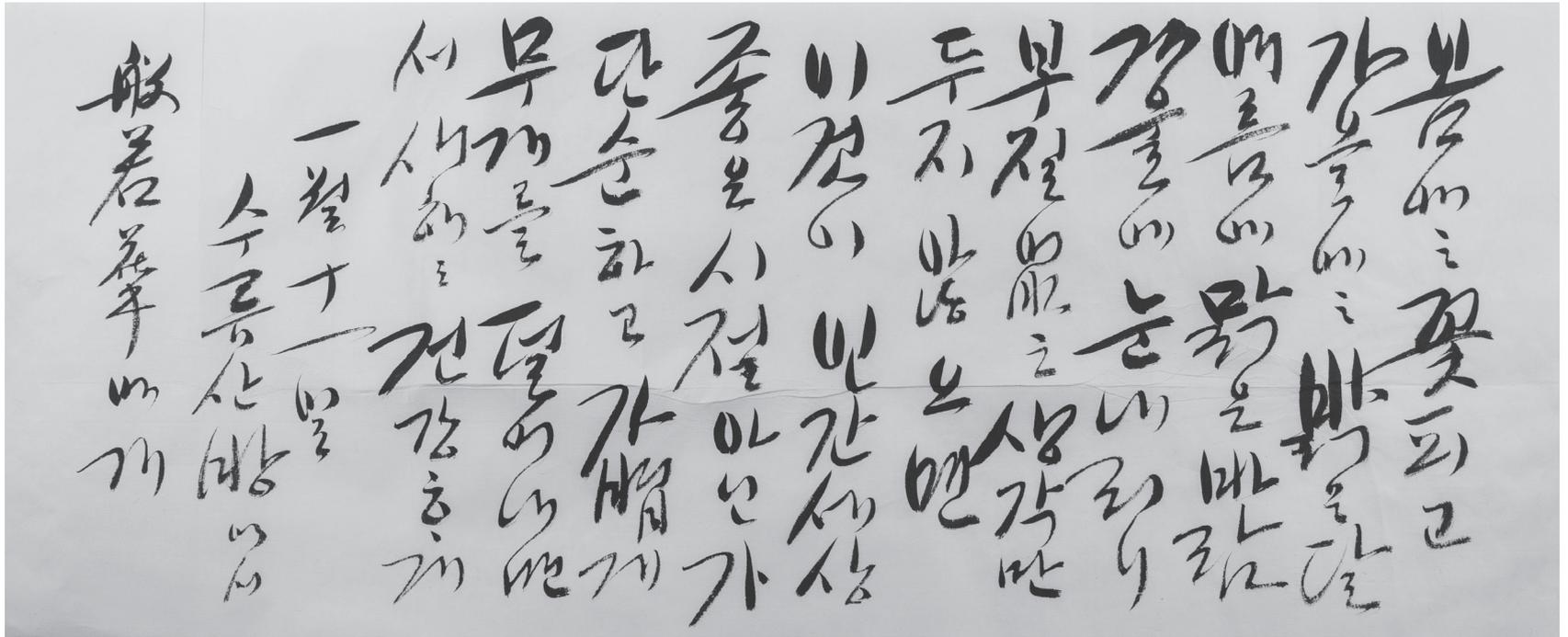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건, 성모 마리아를 부르건, 이 뭐꼬 화두를 하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를 골라서 꾸준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번뇌 망상이 다 사라지고, 순수한 몰입, 순수한 집중을 통해서 잠들어 있던 자아自我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묻지 않아도 스스로 떠오르게 되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스스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 한시도 관계가 끊어지면 살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피곤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폭신한 침대가 아닌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라.

제가 처음 절에 들어올 때는 집도 절도 몹시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요褥가 없었습니다. 방석 하나로 낮에는 그 위에서 좌선하고, 밤에는 딱딱한 목침 하나에 방석을 배에 올려놓고 잤습니다. 아직도 저는 습관적으로 아주 얇은 요 한 장 깔고 잡니다. 그런데 건강에도 너무 폭신한 게 안 좋다고 합니다. 너무 폭신한 데 누워버리면 뼈 자체가 너무 유연하게 됩니다. 물론 체질에 따라 폭신한 것이 좋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의미와 ‘램 다스’가 권유하는 것은 몸은 길들이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게 길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이 글은 2000년 3월 31일 법정 스님이 길상사 설법전 경전반 강의에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3회(2월호~4월호)에 걸쳐 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법정 스님 편지



봄에는 꽃 피고

가을에는 밝은 달

여름에는 맑은 바람

겨울에는 눈 내리니

부질없는 생각만

두지 않으면

이것이 인간세상

좋은 시절 아닌가

단순하고 가볍게

무게를 덜어내면서

새해는 건강하게

1월 11일

수류산방에서

반야화에게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76년에 반야화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일상의 심화

사람이 혼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부자유하다는 것은 무엇에 얽혀 있다는 말이고, 어디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밖의 타인이나 사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잘 산다는 말은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벌써 부모와 관계를 맺은 것이고, 형제와 조산원과 화폐와 같은 유통수단과도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는 모든 관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은 이러한 관계의 지속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지극히 범속 凡俗해지기 쉽습니다. 허구한 날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생활 속에서 자기의 빛깔은 바래가고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도도히 흘러가는 타성의 흐름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분명히 내가 살고 있음에도 내 자신의 의지보다는 보이지 않는 바깥의 흐름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바깥의 흐름과 그 흐름에 묻어 있는 소음 속에

내 자신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은 내 자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기가 바쁘게 바깥의 소음이 밀려드는 세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차가 달리는 소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전화의 벨 소리, 서로 다투는 소리, 쇠가 쇠를 먹는 소리……. 한 말로 해서 이것들은 소음입니다. 소음은 비단 음향뿐이 아닙니다. 대인관계도 어떤 것은 따지고 보면 소음과 비슷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나날의 가지들로 인해서 내 생명의 열매는 알차게 여물 수 없게 됩니다.

범속한 일상생활에 대한 자각은 자기 자신의 뿌리를 살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없어도 좋을 비본질적인 결가지들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지금까지 얽혀온 집착의 가지는 질긴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생나무 가지를 찢는 아픔쯤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물론 일상성 밖에 우리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상성에 긍정적인 의미가 주어지려면 심화 深化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화는 곧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매듭입니다. 그 매듭은 누가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가지치기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스스로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본래적인 나로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벗어난 순수한 '나'를 일단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원초적인 인간의 물음 앞에 마주서야 합니다.

이때 인간은 비로소 고독을 느낍니다. 이 고독은 보랏빛 노을 같은 감상이 아닙니다. 빗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대중가요조의 외로움이 아닙니다. 발가벗은 자신과 마주서 있는 데서 오는 전율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부터 지평선 위에 드리우고 있는 당당한 실존입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말을 상기해봅시다.

“만일 내가 혼자 있다면 너는 완전히 네 것이다. 하지만, 한 친구와 같이 있을 경우 너는 절반의 너다.”

이런 때 고독이란 정말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고독한 것이고요.

이러한 고독은 절망과 동질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 절망은 결코 ‘죽음에 이르는 병’일 수 없습니다. 외부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순수한 자신에게 눈뜨는 계기입니다. 이때 비로소 자기의 분수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불교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진공묘유眞空妙有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홀가분한 상태에서 오묘한 존재 혹은 오묘한 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속한 일상을 밑바닥까지 자각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눈이 뜨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사물이 보이게 됩니다. 바깥 소음에 가려 들을 수 없던 내심內心の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감으로 그의 혼은 뛰고 있습니다. 사명은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닙니다. 내가 찾아서 내

스스로 수행하려는 ‘내 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오로지 그것을 위해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 그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던짐으로써 오히려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넘치는 힘을 부여하는 생명의 즐거움입니다.

생명은 그 자신 안에서 발전할 뿐 아니라, 그 자신을 넘어 보다 높은 의미에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꽃이 열매로 변신하듯이.

이때 비로소 이웃이나 모든 사물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의미가 내려지게 됩니다. 앞서 말한 주어진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제 그의 하루하루는 무의미한 되풀이가 아닌 심화의 새로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날’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못살아도 먼 후일에 가서 잘사는 것을 뜻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삶의 보람을 누리면서 사는 데 그 의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조차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개성과 취향이 다르듯이, 살아가는 데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무슨 일에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꽃피우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의 종말이 명백하다 하여도, 나는 오늘 능금나무를 심는다.”

이 말은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사람만이 발음할 수 있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1970

4.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알라바카 야차

*법정 스님이 번역한 《숫타니파타》와 그에 대한 강론을 연재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알라비국 알라바카 야차의 처소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알라바카 야차가 밖에서 돌아와 스승에게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 주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나가셨다.

또 야차는 말했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들어가셨다.

또다시 알라바카 야차가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 주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다시 나가셨다.

또 야차가 말했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또 들어가셨다.

세 번째 또 알라바카 야차가 스승에게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 주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나가셨다.

또다시 야차는 말했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들어가셨다.

네 번째 또 알라바카 야차가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 주시오.”

그러자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는 더 나가지 않겠다. 네 할 일이나 해라.”

야차가 말했다.

“사문이여,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제게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갠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스승은 대답하셨다.

“친구여, 신, 악마, 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그리고 사문, 바라문, 신, 인간을 망라한 모든 살아 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갠지스강 건너로 내던질 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보라.”

알라바카 야차는 스승에게 다음의 시로써 여쭙었다.

181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선행善行이 안락을 가져옵니까.

맛 중에서 참으로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을 최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82

스승은 대답하셨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다.
덕행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오고,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 할 수 있다.”

183

“사람은 무엇으로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넵니까. 무엇으로 바다를 건너며, 무엇으로 고통을 극복합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완전히 맑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184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거센 흐름을 건너고, 정진으로 바다를 건너며, 근면으로써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지혜로서 완전히 맑고 깨끗해진다.”

185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고,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치며, 어떻게 해서 친구를 사귀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걱정이 없겠습니까?”

186

“성자들이 열반을 얻는 이치를 믿고 부지런히 배우면 그 가르침을 들으려는 열망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다.

187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면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베풀으로써 친구를 사귀다.

188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성실과 자제와 인내와 베풀[布施], 이 네 가지 덕이 있으면, 그는 저 세상에서 가셔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189

만일 이 세상에 성실과 자제와 인내와 베풀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물어보라.”

190

야차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다시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널리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세상에 이익되는 일을 깨달았습니다.

191

아, 깨달은 분께서 알라비에 살러 오신 것은, 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남에게 베풀면 어찌서 위대한 열매가 얻어지는가를 알았습니다.

192

저는 시골에서 시골로, 도시에서 도시로 돌아다니겠습니다. 깨달은 분과 진리의 위대함에 예배드리면서.”

* 다음 호에 181~192에 대한 강론이 이어집니다.

향 파는 장자

선재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신명을 돌보지 않고, 재물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여러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오욕락을 탐하지도 않으며, 권속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왕위 같은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로지 중생을 가르치고, 불국토를 깨끗이 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의 실다운 성품을 알고, 보살의 큰 공덕을 닦아 모으고, 공덕을 닦아 끝내 물러나지 않기만을 원했다. 그리고 모든 겁마다 큰 원력으로써 보살행을 닦고,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두루 들어가고, 한 삼매문에 들어가 모든 삼매문의 자재한神通력을 나타내고, 부처님의 한 터럭 속에서 모든 부처님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법의 지혜 광명을 얻어 부처님의 법장法藏을 지니기만을 원했다.

이러한 불·보살의 공덕을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점점 나아가 광대국에 이르렀다. 장자의 처소를 찾아가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해 부처님의 평등한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원을 채우려고 하며, 부처님의 최상 색신을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을 보고자 하며,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 몸을 알고자

하며, 보살의 행을 깨끗이 다스리고자 하며, 보살의 삼매를 밝게 비추고자 하며, 보살의 총지總持에 머물고자 합니다. 모든 장애를 없애고자 하며, 시방세계에 두루 다니고자 하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 일체지의 지혜를 내는지 알지 못합니다.”

장자가 말했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구나. 나는 모든 향을 잘分別해 알고, 모든 향을 조제하는 법을 안다. 그것은 사르는 향과 바르는 향과 가루 향인데, 이런 향이 나는 곳도 알고 있다.

또 병을 치료하는 향, 악을 끊는 향, 환희심을 내는 향, 번뇌가 일어나게 하는 향, 번뇌를 없애는 향, 유위有爲에 애착을 내게 하는 향, 유위에 싫증을 내게 하는 향, 교만과 방일을 버리는 향, 발심 염불하는 향, 법문을 이해하는 향, 성인이 받아쓰는 향, 보살의 차별한 향, 보살 지위의 향 등이다.

이와 같은 향의 모양과 생기는 일과 출현 성취와 청정 안온과 방편 경계와 위덕 작용과 근본 등 모든 것을 나는 다 통달했다.

선남자여, 마리아산에서는 전단향이 나는데 이름을 우두牛頭라고 한다. 몸에 바르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또 바닷속에 향이 있는데, 이름이 무능승無能勝이다. 북이나 소리에 바르면 소리가 날 때 적군이 모두 저절로 물러간다.

아나바달다 못가에서는 침수향이 나는데, 이름이 연화장蓮華藏이다. 한 알이 삼씨만 한데 그것을 태우면 향기가 염부제에 두루 풍기며, 중생들이 맡으면 모든 죄를 벗어나 계행이 청정해진다. 설산에 향이 있는데, 이름이 아로나阿廬那이다. 중생이 이 향을

맡으면 마음이 확고해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내가 법을 말하면 모두 이구삼매(離垢三昧)(번뇌의 때를 여윈 삼매)를 얻는다.

나찰계에 향이 있는데, 이름이 해장(海藏)이다. 이 향은 전륜왕만이 사용하는데, 한 알만 태워도 왕과 군대가 모두 허공에 오른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향을 조제하는 법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모든 나쁜 버릇을 떠나 세상의 욕망에 물들지 않는다. 번뇌 마군의 결박을 아주 끊고 여러 길에서 뛰쳐나오며, 지혜의 향으로 장엄해 세간에 물들지 않으며, 집착이 없는 계율을 구족 성취한다. 집착이 없는 지혜를 깨끗이 하고 집착이 없는 경지로 가며, 모든 곳에 애착이 없고 마음이 평등해 집착도 없고 의지함도 없음이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공덕을 말하며, 청정한 계율의 문을 나타내며, 허물이 없는 업을 보이며, 물들지 않는 몸과 뜻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누각(樓閣)이라고 부르는 큰 성이 있는데, 거기 뱃사공이 있으니 이름은 바시라(婆施羅)이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얹드려 절하고 길을 떠났다.

6.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옹이

흉터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이것도 꽃이었으니
비록 빨리 피었다 졌을지라도
상처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눈부시게 꽃물을 밀어 올렸으니
비록 눈물로 졌을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면 살지도 않았다
떠나지 않을 것이면 붙잡지도 않았다
침묵할 것이 아니면 말하지도 않았다
부서지지 않을 것이면, 미워하지 않을 것이면
사랑하지도 않았다

옹이라고 부르지 말라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고
한때는 이것도 여리디여렸으니
다만 열정이 지나쳐 단 한 번의 상처로
다시는 피어나지 못했으니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월간 맑고 향기롭게 원고 투고 안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회원님의 귀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중앙모임과 각 지역 모임(대구, 광주, 경남모임)에서 자원봉사활동이나 신행 활동을 하시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느낌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 드러내지 않고 실천했던 활동 속에서 가슴 찡하게 느낀 속마음을 글로 나눠 주세요.

또는 자연의 소중함이나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는 경험담 회원들과 함께 실천하기를 권하고 싶은 이야기도 나누어 주세요.

● 원고 규격

- 분량 : 한글 문서 기준 1,400자 내외(A4용지, 글씨 크기 10pt 1쪽 분량)
- 산문 형식(활동사진 1~2매 첨부 가능)

● 참고 사항

-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법, 띄어쓰기를 확인해 주시고, 문장은 너무 길지 않게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 지극히 교훈적이거나, 너무 짙은 종교색, 비판은 부담스럽습니다.
- 원고 분량을 맞춰주세요. (필요시 편집자가 윤문,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월간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수록된 분에 한해서, 법정 스님 저서 '무소유'를 선물로 드립니다.

● 접수 방법

- 글 쓰신 분의 간략 소개, 활동하시는 내용 소개와 더불어 원고를 clean94@hanmai.net 메일 접수

■ 맑고 향기롭게 앱(APP) 사용해 보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앱(APP)을 내려받아 이용해 보세요. 맑고 향기롭게 여러 활동 소식과 더불어 법정 스님의 귀한 저서와 말씀, 영상 자료를 모바일 웹뿐만 아니라 앱(APP)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구글 play스토어' 와 '애플 App Store'에서 '맑고 향기롭게' 앱을 내려받아 설치 하시면, 맑고 향기롭게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보다 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 중앙모임 임기제 임원, 대의원 지원받습니다.

본 모임 정관과 중앙모임 운영규칙에 따라 본회 목적사업에 공감하고, 회계에 대한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해 무보수 임기제 선출직 임원직 "이사" "감사"

"대의원"을 지원받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중앙모임에 등록된 회원으로 회원가입이 만 3개월 이상이며, 연 최소 10만 원 이상의 후원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꾸준히 후원을 지속하고 있는 자로 지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입니다.

임원과 대의원의 역할은 본회 사업과 회계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 논의 가능하신 분이며, 감사는 본회 정관을 숙지하여 2년간 법인 회계 정기 감사 후 감사보고서 제출, 정기대의원총회 참석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하여,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여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접수 방법 : 전자 우편, 우편, 방문
- 지원 기간 : 2024년 2월 5일까지(연장시 홈페이지 재공지)

■ 미니 목도리 뜨개 활동 1,670개 전달

미니 목도리 뜨개 활동(항기소리) 참가자들이 각자 2023년 한 해 동안 가정에서 떠주는 목도리 총 1,670개를 중앙모임 반찬 나눔 대상자, 서울노인복지센터 만발식당, 대구모임 결연대상자, 광주모임 급식대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미니 목도리 뜨개 활동은 비대면 활동으로 각자 집에서 떠서,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맑고 향기롭게 정기 활동 안내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6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 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만발식당 급식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있는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기와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발식당을 급식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발식당은 어르신들의 사정에 따라 무료 또는 4,000원을 부담하는데, 매일 6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 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 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5일(월)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정기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심리치료, 상담, 정서지원 운영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지대(아동, 청소년, 홀로어르신) 반찬 지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 경로 급식 및 웃음치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청도 운문사 봉사활동 :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8시30분 집결후 이동
- 저소득층 자활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종료(자립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나바다 공유 사업 비정기 진행

●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 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 운영(5층)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2월 3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독 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관음재일

- 일시 : 2월 3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보름기도

- 일시 : 2월 24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동안거 해제 및 90일 관음기도 회향

- 회향 : 2월 24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 입재 : 2월 25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입재 : 2월 27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설 합동 차례

- 일시 : 2월 10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접수번호 1번~900번) / 설법전 (접수번호 901번부터)

입춘기도 및 삼재 소멸 기도

- 일시 : 2월 2일(금) 오전 9시 50분 ~ 2월 4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삼재 : (원숭이띠, 쥐띠, 용띠)

정초기도

- 일시 : 2월 12일(월) ~ 2월 18일(일) 오전 9시 50분
- 금강경 독송 정초 칠일 기도 :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부처님오신날 연등 공양

불기 2568(2024) 갑진년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 공양을 받습니다.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중무소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극락전(법당) 연등		지장전(법당) 연등	
대등(가족·영가등)	100만원	영가등	10만원
가족등	10만원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영가등·수기등			3만원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관음재일	2월 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2월 6일	오후 6시~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2월 2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2월 27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 기도	매 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저녁 6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츠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